

 해양수산부		<b>보 도 자 료</b>		 
		배포 일시	2021. 8. 13.(금) 총 3매(본문 2, 참고 1)	
담당 부서	항만개발과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과장 이상호, 서기관 우봉출, 주무관 장현수</li><li>☎ (044)200-5935, 5936</li></ul>	
보 도 일 시		2021년 8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6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동해 해상 치안 강화하고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한다

### - 해양수산부, 포항 영일만항에 3천 톤급 해경 전용부두 착공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동해 해상의 치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6일(월) ‘포항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 공사’를 착공한다고 밝혔다.

그간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최대 1천 5백 톤급 이하 함정 17척을 운영하면서 동해지역의 해양경비 및 안전관리, 해상치안 유지, 해양오염 방지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. 그러나, 해경 전용부두가 없어 포항 구항의 소형선부두를 이용하였는데, 부두가 작고 협소하여 2~3열씩 가로로 이·접안하는 등 선박 운영에 불편함이 많았다.

또한, 포항 구항을 이용하는 내항선 및 어선의 빈번한 입·출항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등 작전수행 및 함정운영이 어려운 여건이었다.

이에 따라,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앞으로 4년간 총 499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 영일만항에 길이 640m의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. 이를 통해 최대 3천 톤급 중대형 함정을 포함하여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
새로 구축하는 해경 전용부두는 포항 영일만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함정의 이동거리가 이전보다 단축되고, 단독 접안할 수 있게 되어 동해상에 발생하는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\*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\* 출동거리 단축 및 포항구항의 잦은 입출항 선박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 단축 약 30분, 2~3열 횡접안으로 지연된 함정 이안 시간 단축 약 30분 등

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“앞으로도 해경의 신속한 해상 치안유지로 바다 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연안항 등 주요 거점항만을 중심으로 해경 전용부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## 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급변하는 치안환경 대응을 위한 동해안 전략거점 부두 확보로 항만 경계 강화 및 이용성 효율 증대
- (위치)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해상
- (규모) 안벽 640m 등
- (사업기간) 2020년 ~ 2025년 / (총사업비) 499억원
- (시공사 / 건설사업관리자) 두산중공업(주) / (주)아라기술 외 1

## □ 추진현황 및 계획

- '19. 8 : 「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」 반영
- '20. 3.~'20.12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((주)한국항만기술단)
- '21. 8.~'25. 8. : 공사 시행(예정)

